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한 백래시 패션 특성 분석 연구

서 지 예·김 윤*

덕성여자대학교 의상텍스타일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부교수*

요 약

백래시는 페미니즘 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반발 심리 중 하나로 이는 유색인종 인권에 반하는 백인 우월주의에서도 나타난다. 푸코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는 반(反)공간적인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정의하며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백래시와 맥락을 공유한다.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의 반공간적 시각을 통한 공간 재구성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페미니즘과 백인 우월주의에 나타난 백래시 패션을 유형화하고, 백래시가 패션에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래시 패션은 의미의 상실, 반복성,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헤테로토피아 특성 중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과 관계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페미니즘 백래시는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의 특성을 보였고, 화이트 백래시는 일탈, 모순, 공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탈은 하위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션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재구성은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패션을 다른 아이템이나 의미로 승화하여 착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순은 하위집단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패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전락한 패션을 의미한다. 넷째, 공존은 과거 패션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현대 패션에도 유지되어 시간적인 공존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백래시 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다각도의 인권차별과 이를 패션에 융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백래시 패션, 백래시, 헤테로토피아, 페미니즘, 백인 우월주의

*교신저자: 김윤, yoonkim@duksung.ac.kr

접수일: 2021년 10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29일

I. 서론

패션은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계속 변화하며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과거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진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패션이 자리 잡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패션을 받아들이고 유행하는 문화가 발생하는 시대의 수용이 있다. 대중적 수용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패션에 영향을 주며, 미(美)는 그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맞춰 변화한다(Park & Ku, 2012). 미적 가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패션은 한 시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거나 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시각적 언어 중 하나인 패션은 집단의 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을 사회에 전달하기도 한다. 시대적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히피 문화와 히피 패션, 흑표당(Black Panther Party)의 총과 검은 베레모, 가죽 재킷 등은 패션을 통해 집단의 가치관을 보여주며 반(反)하는 사회적 문화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패션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Lee, 2016).

백래시(backlash)는 공학적인 의미로 맞물린 톱니바퀴 사이 공간이라는 의미이며, 사회학적인 의미로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반발하는 심리이다. 수잔 팔루디(Susan Faludi)는 19세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에 반하여 나타난 사회의 반발 심리를 백래시라고 하였다(Faludi, 1991/2017). 페미니즘에 나타난 백래시는 여성운동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바라보는 사회 기득권층에 의해 발현되었다. 1960년대 언론은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은 오히려 페미니즘으로 인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당시 여성들이 거부하고 있던 코르셋과 여성성이 드러나

는 패션을 다시 유행시킴으로써 페미니즘에 반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Faludi, 1991/2017). 최근 백래시는 여성 인권을 포함하여 흑인 인권 등 약자를 위해 시작된 다양한 사회적 운동에 반하여 세력이 약해진 기득권층이 다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반발 심리에 의해 발현되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진다(Park, 2020). 그 중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로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매개체이기 때문에 백래시는 패션에서 크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백래시에 대한 연구는 팔루디의 저서인 『백래시(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1991))』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Seok(2019)의 일본의 학교 교육에 나타난 젠더 백래시에 대한 연구와 Park(2020)의 우파 포퓰리즘(Populism)과 함께 브라질 정치에 나타난 화이트 백래시(white backlash)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백래시에 대한 연구이며 백래시와 패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Tyler(2020)의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광고 캠페인에 나타난 백래시가 브랜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Rutherford(2009)의 보그(Vogue) 잡지를 통해 나타난 패션이 백래시가 나타난 사회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대중적 시각 언어인 패션이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백래시와 관련된 해외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패션과 관련된 백래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현상을 새로운 공간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론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철학자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해 정의되었다(Foucault, 1974/2014).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일종의 반공간을 의미한다. 헤테로토피아 이론은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전시 공간, 건축 등 공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부터 문학,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헤테로토피아 이론을 통한 연구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동적 특성을 헤테로토피아 관점에서 살펴 본 Seo(2011)의 연구와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반영한 여성복 패션 디자인 발상에 대한 연구인 Kim(2017)의 연구가 있다. Chu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하였으며, Jeong and Kan(2020)은 Blitz Kids 집단에서 나타난 뉴 로맨틱 특성을 헤테로토피아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패션 분야의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 스타일의 특성을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거나 패션 디자인 발상에 반영하는 등 일차적 분석 이론으로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백래시는 패션을 통해 반발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개성으로 표현되는 패션 스타일이 내면화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패션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공감각적 시각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이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이론과 연결된다. 과거 백래시를 통하여 패션을 통제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으나 패션과 관련된 백래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래시를 페미니즘 백래시와 화이트 백래시로 구분하고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의 반공간적 시각을 통해 공간 재구성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페미니즘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타난 백래시를 백래시 패션으로 유형화하고 백래시가 패션에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인권차별과 이에 나타난 패션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국내·외 논문과 서적,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및 원리와 백래시에 대한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이후 헤테로토피아의 원리 중 백래시와 연관된 특성을 도출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범주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료는 보그닷컴(<https://www.vogue.com>)과 구글(<https://www.google.co.kr/>)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대중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 브랜드의 패션이 표현된 컬렉션 이미지, 캠페인 이미지, 패션 필름 등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인 백래시에 대한 연구가 최근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래시 패션을 분석하고자 2009년부터 2021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백래시의 정의 및 발생

1) 백래시의 정의

백래시는 공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공학적인 의미로는 맞물린 두개의 톱니바퀴 사이에 생기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사회학적인 의미로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반발하는 심리라는 의미로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여론의 발생을 의미한다. 팔루디는 백래시를 저서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를 통해 페미니즘과 접목하여 해석하였다. 팔루디는 1970년대 페미니즘이 확장된 이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의 신보수주의 아래 언론, 대중매체 등 많은 분야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이 불행해졌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여성을 상대로 일관된 공격성을 보이는 현상을 백래시라고 명명하였다(Faludi, 1991/2017). Park(2010)은 당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자들의 열등한 현실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희생자에게 책임 돌리기’를 통해 약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즉 백래시는 정치적, 사회적인 흐름에 기득권층이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래시는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현상이지만 최근 페미니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는 유색인종 또한 기득권층인 백인에 의해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인종 차별을 바탕으로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종을 크게 백인, 유색인으로 구분하여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Ha, 2012).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는 다른 인종과 백인을 구별하려는 특성을 보이는데 최근 인종 평등에 대한 시각이 보편화되면서 백인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문화 등 백인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인의 기득권층을 유지하려는 화이트 백래시가 등장한다.

사회문화적 의미로 사용된 백래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Seok(2019)은 백래시를 젠더 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어가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비판이나 반격·공격을 의미하며 이것이 큰 흐름이나 전체의 움직임, 혹은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본 사회의 여성 차별과 관련하여 나타난 젠더 백래시와 젠더와 관련된 일본 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Mi(2020)는 국내 대학의 참여 학생회 페이지에서 나타난 백래시의 사례를 보여주며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매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페미니즘과 함께 인권 문제로 대두되는 유색인종 차별과 관련된 백래시 선행연구로 Park(2020)은 트럼프주의의 화이트래시(whitelash)를 바탕으로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

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적대(antagonism)의 대상을 사회적 소수자로 설정하여 백래시를 사회 분위기가 과거로 회귀하거나 퇴조 혹은 반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 페미니즘 백래시

19세기 시작된 대표적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은 성(性)에서 시작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인권 운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현대적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본적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즉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규정되었던 여성의 모습을 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재규정한다(Lee, 2004).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시각에 의해 남녀갈등을 초래했으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약자에 위치한 여성을 대상으로 백래시가 나타나게 된다.

1968년 미스 아메리카 시위(Miss America protest)는 여성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Figure 1>과 같이 ‘Freedom Trash can’에 브래지어, 메이크업 용품, 코르셋 등의 여성 상징적인 제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bra-burning’으로 바꾸어 보도하였고 이러한 언론의 백래시에 의해 미스 아메리카 시위는 브래지어를 태우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된다. 이는 여성 해방 운동의 목표를 폄하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언론에 나타난 백래시로 인해 대중은 페미니즘 운동의 본질을 잊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니 드레스, 파티 드레스, 코르셋으로 몸을 조이는 드레스 등 활동하기 어려운 의복과 관련된 소비가 감소하면서(Faludi, 1991/2017) <Figure 2>와 같이 움직임에 자유로운 세미 슈트



Figure 1. 미스 아메리카 시위 1968.
From Miss America protest. (n.d.).
<https://en.wikipedia.org>



Figure 2. 1980년대 여성 패션.
From Ardry. (n.d.).
<https://fashiondiary.com>

나 몸을 조이지 않는 의복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는 이를 ‘여성들의 패션 반란’, ‘비싼 가격에 대한 충격의 봉기’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여성들의 활발해진 경제 활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이 의복 소비에 독립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 업계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해 여성이 스스로 여성적인 옷을 차려입을 권리를 부정했다고 말하며 여성적인 옷을 입지 않으면 여성적인 본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패션에 나타난 백래시라고 볼 수 있다(Faludi, 1991/2017).

또한 팔루디는 백래시를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향해 진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당시의 언론들은 여성 운동 혹은 여성에게 유리한 현상들이 여성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이러한 백래시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다시금 여성성을 강조하며 언론에 선동되는 경향을 보였다(Faludi, 1991/2017). 즉 하위 문화의 발전이 기득권층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백래시가 나타나며 오랜 시간 지속된 차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모른 채 살아온 여성들은(Faludi, 1991/2017) 평등한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보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1968년 미스 아메리카 시위는 여성의 상징적인 제품을 버리는 행동으로 여성 해방을 외쳤으며, 1980년대 노브라운 운동은 여성 인권의 성장을 위해 여성의 가슴을 성적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를 위한 운동

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성 인권이 기존보다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진보적인 활동으로, 기득권층은 이를 위협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백래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3) 화이트 백래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종주의는 인종 간의 다양한 본질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인구 집단이 특정 인구 집단에 위계질서를 강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Bae, 2003) 유색인종 차별이 대표적이다. 백인 우월주의는 19세기 이주민인 유럽인을 위해 원주민을 차별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서부터 형성된다(Bae, 2003).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이 진행되었고 ‘트럼프주의(Trumpism)’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트럼프주의란 보호주의,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고립주의, 환경 및 외부 규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일반적으로 이민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라고 정의된다.(Lieberman et al., 2017; Park, 2020) 데이비드 엠브릭(David G. Embrick) 등의 학자들은 트럼프주의의 등장이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반격을 의미하며 이를 팔루디의 백래시를 응용해 화이트래시라고 명명하였다(Park, 2020). 또한 화이트래시는 화이트 트래시(white trash)의 줄임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는 미국 내 백인 범죄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백인인종 차별주의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팔루디의 백래시를 응용하여 명명하기 시작한 화이트래시는 백인인종 차별주의자인 화이트 트래시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타난 백래시에 대한 연구이므로 화이트래시를 화이트 트래시와 혼용되지 않도록 ‘화이트 백래시’라고 명명한다.

화이트 백래시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반발

심리로 백인 우월주의를 배경에 두고 있다.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과거에는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이유로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에 의해 유럽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는 블랙 댄디즘(dandyism)으로 발전해갔으며 백인들에 의해 댄디화된 흑인이었지만 <Figure 3>과 같이 자신의 스타일을 댄디하게 표현하며 스스로 치장하는 흑인 셀럽이 되었다(Ko, 2020). 이는 백인에 종속되어 있던 흑인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흑인 노예의 사회 및 경제적 평등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백인으로부터 차별받던 흑인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흑백의 인종주의적 사고로 인해 인종적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위협적이었던 백인은(Ko, 2020) 블랙 민스트럴 쇼(Black Minstrel show)를 통해 백래시를 보였다. 블랙 민스트럴 쇼는 흑인처럼 분장한 백인이 등장하는 분장쇼로 흑인을 희화화하여 폄하하였다(Figure 4). 이러한 백래시를 통해 백인은 흑인 광대를 보며 인종적 우월감을 느꼈으며(Jung, 2014), 블랙 댄디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흑인의 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억압하였다. 유색인종 집단은 오랜 시간 유지된 인종 차별에 맞서기 위해 패션을 통해 저항성을 드러냈다.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흑인들은 미국 노동자 작업복에서 시작한 블루진을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의미로 착용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블루진은 20세기 이후 가장 대중적인 의복으로 자리매김



Figure 3. 블랙 댄디즘의 주트(Zoot).
From Stubbs, (2017).
<https://therake.com>



Figure 4. 민스트럴 쇼 포스터.
Minstrel show. (n.d.).
<https://en.wikipedia.org>

하며 기존의 저항적 의미를 상실한 채 문화를 선도하는 흑인들의 자부심에서 착용되기 시작한다(Kim, 2014). 그러나 유색인종의 패션 문화 선두는 인종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았으며 백인에 의한 백래시는 지속되고 있다.

2.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및 원리

헤테로토피아는 ‘heteros(다른)’와 ‘topos(장소)’의 의미가 합쳐진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의미한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가가 수 없는 공간이지만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이며 다른 공간에 맞서 공간의 의미를 구성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반공간으로 사회에 의해 고안되어 그 안에 제도화되어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며 정상 공간들에 이의 제기하는 공간이다(Foucault, 1974/2014). 패션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패션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사회적 환상이나 대안을 만들 어낸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이론과 연결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위협과 반향을 유발하는 장소(Seo, 2011)이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백래시와 비슷한 특성이 있으며,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와 몸이라는 장소를 연관 지어 해석하며 몸은 권력과 소통시키는 특성을 지닌 다(Foucault, 1974/2014)고 말하였다. 이는 기득권층의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백래시가 몸에 걸쳐지는 복식인 패션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와 백래시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푸코의 『Heterotopia』(Foucault, 1974/2014)를 바탕으로 해석하였으며, 푸코의 역서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의 이론적 체계인 헤테로폴로지(heteropologies)를 기준으로 <Table 1>과 같이 6가지 특성을 정리하였

Table 1.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특성.

헤테로토피아 특성	내용	특성별 공간
위기와 일탈	금지된 구역 혹은 규범의 요구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	요양원, 정신 병원, 감옥 등
재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은 사라지기도 하며 새로운 의미로 구성되기도 하는 원리	묘지 등
중첩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실제 한 장소에 겹쳐놓는데 원리	극장 등
시간 분리	시간이 축적된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일시적인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원리	박물관, 도서관/극장, 시장 등
개폐	고립시키는 동시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열림과 닫힘의 원리	감옥, 군대, 성매매촌 등
환상과 보정	특정 공간을 통해 다른 공간이 더 두드러지는 원리	유흥업소, 식민지 등

다. 헤테로폴로지의 6가지 특성은 연구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위기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원시 사회에 나타난 특권화되거나 금지된 장소들은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를 보여주며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한 장소로 나타난다. 위기의 헤테로토피아가 사라지면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가 등장하는데 이는 평균 혹은 규범의 요구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을 위해 마련한 요양원, 정신 병원, 감옥 등의 장소에 해당한다.

둘째, 재구성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에 구축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묘지는 과거 마을의 한가운데 교회와 함께 위치하여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염병의 장소이며 불결한 의미의 공간이 되었다.

셋째, 모순적 중첩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일반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실제 한 장소에 겹쳐놓는 데 원리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극장이 있다. 극장은 이차원 공간에 삼차원의 공간을 영사하여 새로운 공간을 가지게 된다.

넷째, 시간 분리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시간의 분

할과 연결되는 헤테로토피아는 영원의 헤테로토피아와 한시의 헤테로토피아로 구분되어진다. 무한히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영원의 헤테로토피아에는 박물관과 도서관 같이 시간의 축적이 나타나는 장소에 존재한다. 축적한다는 발상, 시간을 정지시킨다는 발상, 시간을 특권화된 공간에 무한히 누적시킨다는 발상, 어떤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발상, 모든 시간·시대·형태·취향을 하나의 장소 안에 가두어놓으려는 의지, 모든 시간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발상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시의 헤테로토피아는 극장, 시장 등의 일시적인 장소가 있으며 시간의 축적과 반대로 원죄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개폐의 헤테로토피아로 언제나 그것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보여준다. 닫힘의 헤테로토피아는 일반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으며 감옥, 군대와 같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갈 수 있다. 열림의 헤테로토피아는 미묘한 배제를 감추고 있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 배제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입성한 것 자체의 사실을 사라지게 만든다.

여섯째, 환상과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 헤테로

토피아가 나머지 공간에 대한 기능을 보여준다는 특성이다.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는 이를 통해 다른 모든 공간이 더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금기시되어 있지만 유흥을 통한 환상을 찾을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는 무질서한 공간을 완벽히 새로운 현실 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식민지에서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를 찾아볼 수 있다. 실재하는 공간을 외부 공간의 의미와 반전하여 연결 지어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왜곡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패션과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원초적인 유토피아로서 몸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의복이 존재하는 공간인 몸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로, 고유한 환상성의 원천을 가지고 있으며 가면, 화장, 문신 등의 몸을 치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몸은 권력, 보이지 않는 힘과 소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Foucault, 1974/2014). 이때 자아는 몸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다른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개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 등 몸을 꾸미는 행동은 몸을 고유한 공간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공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환상은 거울과 시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이 갈 수 없는 공간에 머무르며 타자화된 자신의 몸이라는 공간을 관찰할 수 있다(Foucault, 1974/2014).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Seo(2011)는 헤테로토피아를 사물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중첩되거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되는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물의 상태’, ‘혼란 속의 질서’를 일컫는 공간의 재구성된 개념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역설적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관습을 거부하여 때로는 위험과 반항을 유발하는 장소라고 설명하였다.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에 대해 일

상을 낮설게 조명하여 고착화된 삶을 새롭게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Chung et al.(2018)의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로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Jeong and Kan(2020)은 헤테로토피아를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반공간을 통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III. 백래시 패션

1. 백래시 패션의 정의

패션은 자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며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패션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196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히피 문화는 자유를 갈망하는 20대의 욕망을 자유로운 패션을 통하여 표현했으며 1980년대 여성 단체의 노브라 운동은 브라지어라는 여성의 상징적 패션 아이템 탈피를 통하여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성적 대상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은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개인 혹은 단체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자기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문화 흡수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패션은 한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유행이라는 큰 흐름을 구성하게 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인해 대중의 패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Kim & Choo, 2019) 패션은 과거보다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대중화, 군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특성은 유행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패션의 흡수를 의미하며

(Jeong & Yang, 1999)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근본적 의미를 상쇄시키기도 한다.

2차 세계 대전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이전의 가정적인 여성보다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전쟁으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여성성을 표출하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뉴 룩(new look)’이라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Figure 5). 뉴 룩의 아워 글라스 실루엣은 <Figure 6>와 같이 중세 시대에 나타난 코르셋을 연상하게 하는 실루엣으로 바 슈트(bar suit)를 착용하여 새로운 코르셋을 탄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다시금 몸매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여성의 신체를 껍조이거나 노출이 심한 복식을 추구하는 문화는 점차 사라졌지만 현재 다시 여성 패션에서 코르셋이나 란제리 룩을 착용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은 몸에 타이트한 의상을 착용해 몸매를 부각시키는 의상이나 평상복 위에 혹은 란제리만을 착용하는 란제리 룩 등 여성성을 강조하는 패션을 착용하며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에 코르셋이 가지고 있던 성차별적인 의미는 사라진 채 여성 스스로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보여주고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패션은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로 과한 노출과



Figure 5. 디올의 뉴룩 1947.
From House of Dior.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6. 중세시대 코르셋 바스킨.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From Kim et al. (2010). p. 218.

코르셋을 착용하는 것이 개성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몸을 통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Yim, 2014).

흑인 패션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은 하이패션으로 통합되면서 스트리트 패션의 본래 의미였던 백인 위주 사회에서 흑인 인권 운동으로 불평 등에 대항하는 저항 정신(Lee & Koo, 1997)은 사라지고 흑인과 백인 구별 없이 스트리트 패션을 향유하고 있다(Yim & Kim, 2003). 부정적인 의미 혹은 저항 정신으로 나타났던 스트리트 패션이 기득권층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로 개편되고 본래 의미는 잊은 채 단지 대중화된 착용으로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둔 미적 패션으로 향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하위문화 패션이 기득권층에 의해 내포하고 있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별적 상황은 잊은 채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는 패션을 백래시 패션이라고 정의한다.

2. 백래시 패션의 특성

본 연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백래시 패션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백래시 패션은 가지고 있던 본래 의미가 상실된다는 특성이 있다. 기득권층에 의해 차별받는 집단인 여성과 유색인종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집단의 진보적 의사를 표현한다. 흑인 문화에서 발생한 스트리트 패션은 백인에 의한 인종 차별 아래 나타난 것으로 그 중 루드 보이(Rude boys)는 1960년대 흑인 실업과 선거권 박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서구 댄디 스타일을 차용한 반항적인 패션이다(Ko, 2020). 이러한 패션 스타일은 기득권층에 의

한 불만을 표현하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성 표현을 위한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며 기존의 의미를 상실한 채 향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득권층의 권력은 억압적인 모습을 감춘 채 자연스러운 환경 변화를 통해 하위문화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Yim, 2014)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기득권층에 의한 차별적 상황에 반하여 독자적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매개체로 사용된 패션이 시간의 축적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하위집단이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보성을 잃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층에 의한 백래시 패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집단은 기득권층에 의해 재구성된 백래시 패션에 내포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 백래시 패션을 착용하게 되는 모순적 특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백래시 패션은 특정 패션의 상황적 반복성을 가진다. 백래시 특성 중 하나인 반복성은 하위집단에서 나타난 진보성으로 인해 기득권층에 위협적인 상황이 반복될 때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하위집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백래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특성이다. 백래시 패션 또한 기득권층에 위협적인 상황일 때 상황을 통제하거나 되돌려놓고자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백래시 패션을 배치하게 된다. 과거 몸을 치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여성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주는 코르셋, 미니 스커트나 몸에 딱 붙는 드레스가 아닌 수트, 팬츠 등 남성적인 패션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진보적 변화는 여성 패션 아이템을 기반으로 성장한 패션 시장에 경제적인 타격을 미쳤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당시 기득

권층의 지위를 위협하는 변화였으며 이러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패션 시장은 변화를 일으킨 여성 수트의 생산을 중단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미니 드레스, 스커트 등의 아이템을 대량 생산하여 여성의 패션을 기존의 가정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성이 강조된 패션으로 되돌려놓고자 하였다(Faludi, 1991/2017). 기득권층에 의해 다시 유행된 미니 드레스, 코르셋 등의 백래시 패션으로 인해 여성은 자연스럽게 과거와 같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아이템을 착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이 위협적이었던 기득권층은 변화한 하위집단에 다시 백래시 패션을 착용하게 하여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것에서 백래시 패션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백래시 패션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가진다. 패션은 트렌드라는 큰 흐름을 바탕으로 무한히 변화하는 것으로 백래시 패션 또한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나타난다. 이는 두 번째 특성인 반복성과도 연관이 있다. 백래시 패션의 주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코르셋은 근대 시대부터 여성과 분리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코르셋을 착용하는 것은 노동에서 벗어난 특권층임을 드러내는 사회적 상징이다(Yim, 2014). 그러나 이러한 의미 뒤에 남성이라는 기득권층에 의해 여성을 억압하고자 하는 지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 코르셋을 착용하며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성이 강제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이 여성적인 패션에서 벗어나고 권력의 수동적인 존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로 인해 다시 트렌드가 되어 나타난 미니 드레스, 스커트 등의 백래시 패션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변화된 코르셋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트렌드에 맞춰 등장한 다양한 ‘코르셋’으로 여성성 유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백래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시대에 유행하는 여성

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몸을 구속하여 기형적으로 변화시키는 코르셋에서 벗어나 여성의 신체적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란제리 패션, 오프숄더, 크롭티 등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패션 등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백래시 패션이 트렌드가 되면서 지배층의 권력에 의한 수동적 착용이 아닌 여성의 선택에 자율성을 부과하게 된다.

3. 백래시 패션과 헤테로토피아의 관계성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을 분석한 선행연구 중 헤테로토피아에 나타난 여섯 가지 특성을 특정 단어로 치환하거나 특정한 특성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여 구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Seo(2011)는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특성 중 유동성, 가변성, 탈구조성을 바탕으로 블랍(blob), 플드(flod), 블러링(blurring)이라는 개념을 도출했다.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 특성의 ‘모순, 전복, 일탈, 복잡’을 ‘나열하기, 뒤집기, 떼어내기, 쌓기’의 특성으로 치환하여 패션 디자인 발상에 대한 유형을 연구하였다. Chung et al.(2018)의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중 일탈, 전이, 모순, 위기, 혼재를 이용하여 남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

했다. Jeong and Kan(2020)은 헤테로토피아 특성인 일탈성, 전이성, 혼재성, 환상성으로 Blitz Kids 집단에서 나타난 뉴 로맨틱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위 내용을 <Table 2>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래시 패션은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중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특성 중 일탈은 규범의 요구로 일탈된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집단에 의해 강요된 패션을 착용하게 되는 백래시 패션과 비슷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재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사라지거나 새로 정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백래시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헤테로토피아 특성 중 중첩은 모순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양립 불가능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에 겹칠 수 있다는 의미로 백래시 패션에서 나타나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의 모순적 패션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분리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축적은 시간의 공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백래시 패션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패션의 공존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성을 들 수 있다. 백래시 패션의 특성인 패션이 가지고 있던 본래 의미의 상실, 특정 패션의 상황적 반

Table 2. 패션 관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 특성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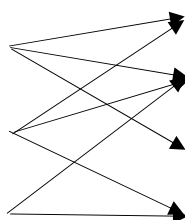
연구자 (년도)	헤테로토피아 특성					
	위기와 일탈	재구성	모순적 중첩	시간분리	개폐	환상과 보정
서승미 (2011)		○ 가변성	○ 탈구조성	○ 유동성		
김민지 (2017)	○ 일탈	○ 전복	○ 모순	○ 복잡		
정수진, 임은혜, 서승희 (2018)	○ 일탈, 위기	○ 전이	○ 모순	○ 혼재		
정나라, 간호섭 (2020)	○ 일탈성	○ 전이성	○ 혼재성			○ 환상성



	○ 일탈	○ 재구성	○ 모순	○ 공존		
--	---------	----------	---------	---------	--	--

Table 3. 헤테로토피아 특성과 백래시 패션 특성의 관계성 분석.

백래시 패션 특성	특성 분석	헤테로토피아 특성
의미의 상실	- 하위문화 패션의 의미 재구성 - 과거로의 회귀 - 본질적 의미보다는 미적 가치 중시	일탈
반복성	- 반복적인 하위집단의 진보 - 하위집단의 일탈을 막기 위한 견제 - 반복적인 패션의 등장	재구성
상황에 따른 유연성	-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여 존재 - 시간이 지나도 유지	모순
		공존



복성,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은 헤테로토피아 특성과 <Table 3>과 같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패션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하위집단이 진보하기 전인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패션이 나타나게 된 본질적 의미보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미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이는 헤테로토피아 원리 중 일탈, 재구성, 모순에 해당한다. 백래시 패션의 반복성은 반복적인 하위집단의 진보적 활동을 저지하고자 나타나는 것으로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이며 하나의 패션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백래시 패션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하위집단이 백래시 패션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백래시 패션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는 헤테로토피아 원리 중 일탈, 재구성, 공존에 해당한다. 동시에 백래시 패션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며 트렌드를 바탕으로 대중이 수용 가능한 패션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백래시 패션만 유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패션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공존하는 것으로 헤테로토피아 원리 중 일탈과 공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중 재구성, 모순, 일탈,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과 화이트 백래시 패션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IV.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의한 백래시 패션 분석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한 백래시 패션의 유형인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을 통해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과 화이트 백래시 패션을 분석하였다.

1.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

1) 일탈

근세 시대 이후 왕과 귀족은 복식을 통해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패션을 통해 계급을 과시하였고 이후 남녀 각각의 이상적인 신체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대적 구분(Kim et al., 2010)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남성은 경제 활동을, 여성은 가사 노동을 주로 맡는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해짐에 따라 남녀 복식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남성의 눈을 즐겁게 하는 가는 허리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La & Choi, 2004). 이로 인해 여성은 신체 노출과 함께 코르셋, 스톱마커 등의 체형 보정물을 통하여 가슴은 풍만하고 허리는 날씬한 신체미를 구현하게 된다. 이는 남성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박탈당한 여성들을 코르셋으로 억압하고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으로(La & Choi, 2004) 과거 여성의 인권은 남성
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패션에서 과거 코르셋과 신체 노출은 여성 인권의
하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근 코르셋, 란제리 룩, 과감한 노출 등의 일탈적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여성은 이러한 패션을 착
용함으로써 모순적인 주체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며
여성 인권의 퇴보를 표현함과 동시에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 역
행하고 있다. <Figure 7>의 생 로랑(Saint Laurent)
의 2021 패션 필름에서 패션, 조명, 표정 등에서
여성성을 관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택을 배경으로 블랙 의상을 착용한 모델들은 위킹
을 하며 실내에 배치된 가구에 착석하거나 눕는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섹슈얼한 자세를
취하거나 매혹적인 표정을 보여주며 여성성을 불
필요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등장하는 패션 중 여성
의 상체를 시스루 원피스의 간접적 노출로 여성의
몸을 강조해 여성을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돌체 앤 가바나의 <Figure 8>은 크롭된 상·하의와
몸에 딱 붙는 디자인으로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
는 패션 트렌드와 유사한 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노출은 찾아볼 수 없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노출의 과감함이 더욱 강조되는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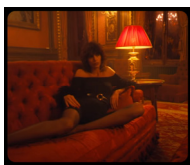


Figure 7.
생 로랑 2021.
From Saint Laurent. (2020).
<https://www.youtu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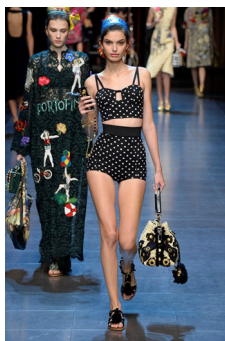


Figure 8.
돌체 앤 가바나 2016 SS.
From "Spring/Summer 2016".
(2015).
<https://www.vogue.co.kr>

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매우 짧은 반바지
착용 시 바지 안에 속바지를 입어 바지 바깥으로
속바지가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는 2016
S/S에 제시된 패션 컬렉션이 실제 트렌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성은 아이
러니하게도 백래시 패션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
면서까지 신체 노출을 받아들이는 일탈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구성

과거부터 나타난 아이템이 현대에 다른 형태의
패션으로 표현되어 의미나 착용 위치가 재구성되
는 것으로, 여성복 패션에서 이너웨어를 통해 보
여지는 섹슈얼 표현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너웨어를 겉옷 위에 입어 아우터웨어로 활용하
는 패션 아이템의 역할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섹
슈얼리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성 상품화
의 대상으로 머무르게 한다. <Figure 9>에서 코르
셋이라는 란제리를 유광 가죽으로 디자인한 벨트
처럼 표현하여 란제리임에도 아우터웨어로 착용하
는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기
존의 코르셋과 달리 가슴을 강조하지 않아 시각적
으로 섹슈얼리티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허리를 얇
게 강조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몸을 변
형시키는 코르셋의 특성을 보인다. 메종 마르지엘
라(Maison Margiela)의 2018 S/S 컬렉션의 디자인은
란제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너웨어의 위치
재구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성 복식은 발전해왔으나, 여성의 신체
중 섹슈얼한 특징을 보여주는 가슴, 허리, 엉덩이
에 대한 강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반복되어 나
타고 있다. 이는 과거 복식의 스토마커, 코르셋,
버슬 스타일 드레스 등을 통해 발현되었으며 현대
에 와서는 란제리를 통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Kim & Yang, 2002). <Figure 10>
은 란제리를 아우터웨어로 착용해 가슴을 직접적으



Figure 9. 벨트 코르셋.
From 'the Archives: Corsets in
Vogue'. (2013).
<https://www.vogue.com>



Figure 10. 메종 마르지엘라
2018 SS.
From Spring/Summer 2018.
(2017). <https://www.vogue.co.kr>



Figure 11. 뮈글러 2021 SS.
From Spring/Summer 2021.
(2021).
<https://www.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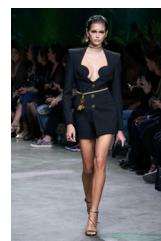


Figure 12. 베르사체 2020 SS.
From Spring/Summer 2020.
(2019).
<https://www.vogue.co.kr>

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밝은 계열의 원피스 위에 검정색 란제리를 착용하여 색상의 대비로 인한 여성성 강조를 표현하였다.

3) 모순

과거와 달리 여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여성은 개인의 권력, 관능,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남성과 달리 미를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발전시키는데(Yim, 2014) 이는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득권층의 백래시로 인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 인권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성 평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성은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섹슈얼리티적 표현을 유지하는 모순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섹슈얼리티와 결합하여 당당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과감한 노출을 선택하고 있다. 뮈글러(Mugler)의 2021 S/S 컬렉션에 나타난 <Figure 11>은 청바지에 검정색 페인팅 효과를 통해 티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모델의 과감하고 당당한 포즈와 빨간색 장갑은 상체가 탈의한 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주며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베르사체(Versace)는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포멀한 정장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에서 옷은

개인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장은 성공한 사람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Figure 12>에서 정장의 여밈을 깊게 내어 노출하였으며 재킷으로 가슴의 중앙을 가리면서 동시에 가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4) 공존

백래시 패션의 공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션의 의미가 변했더라도 과거와 현재에 표현되는 방식이 공유되어 양쪽 시대에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과 동시에 반복과 유지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패션은 시대의 특징으로 남아있게 되며 반대로 패션을 통한 시대 특성의 역추적도 가능하다. 백래시 패션에서도 유지에 의한 공존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코르셋은 이상적인 여성 몸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위한 유지 장치로 사용되었다면,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코르셋은 장식적인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거나 여성의 움직임에 제약을 준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Figure 13>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코르셋의 원형을 유지한 원피스를 선보였다. 구성적인 입체감을 통해 코르셋을 연상하는 원피스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거와 공유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슴과 허리, 골반에 착시를 일으키는 삼각선을 이용해 몸의 실루엣을 더욱 가늘어 보이게 표현하고 있



Figure 13.
장 폴 고티에 2010 SS.
From Spring/Summer 2010
Haute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09).
<https://www.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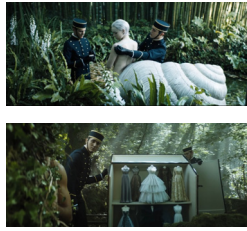


Figure 14. 크리스찬 디올
2020-2021.
From Dior Autumn-Winter
2020-2021 Haute Couture, (2020).
<https://www.youtube.com>

다.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 필름을 통하여 2020-2021 A/W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서 내추럴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상을 보여주며 이번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성이 벗고 나오거나 물에 젖은 상태로 등장하며 <Figure 14>와 같이 벗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이 몸의 치수를 재는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여성에게 추천하는 의상은 중세 시대 복식을 연상하게 하는 코르셋 착용이 요구되는 페미닌한 드레스나 상체가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과거의 여성들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는 2020-2021 A/W 컬렉션의 패션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화이트 백래시 패션

1) 일탈

문화는 한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외 패션 브랜드에서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인종 차별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패션을 통한 인종 차별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는 상징적 차별은 특정 문화에 대한 일탈로 볼 수 있다. 백인과 유색인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색이다. 피부색을 기준으로 각 문화권의 민족을 백인, 흑인, 황인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는 시각적 차별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이 된다. 지난 2018년에 프라다(Prada)는 12월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프라다말리아(Pradamalia)’라는 열쇠고리를 출시했다. 이 열쇠고리는 얼굴, 몸, 팔, 다리 등이 달려있어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프라다는 갈색 몸통에 초록색과 노란색이 혼합된 디자인과 함께 검정색 머리와 빨간색 입술의 디자인을 출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흑인을 비하하는 블랙 페이스(black face)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구찌(Gucci)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구찌는 <Figure 15>와 같이 백인 모델에게 블랙 페이스를 마스크로 씌워 백인 우월주의, 즉 화이트 백래시를 보여준다. 흑인의 신체적 특징인 검은 피부와 붉은 입술을 희화화하여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한 것은 백인의 우월성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장 폴 고티에는 동양인을 연상하게 하는 컬렉션을 자주 선보였는데 <Figure 16>은 동양인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붉은색 스타킹과 함께 터번, 화려한 액세서리를 보여준다. 붉은색 스타킹은 화이트 백래시와 함께 페미니즘 백래시도 보여주는데 이는 백인이 동양인 여성을 묘사할 때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모순

화이트 백래시는 페미니즘 백래시와 다르게 재 구성과 모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모순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기득권층인 백인의 인종 차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반향으로 나타난 패션은 대부분 현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대중적인 패션으로 착용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문화적 흐름에 비추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재구성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차별 집단인 유색인종이 기득권층에



Figure 15.
구찌 2018 FW.
From Fall/Winter 2018. (2018).
<https://www.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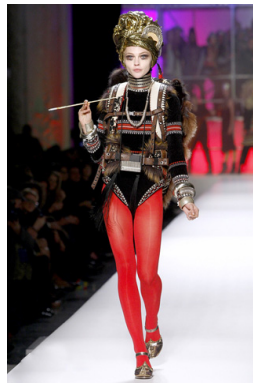


Figure 16.
장 폴 고티에 2010 FW.
From Fall/Winter 2010. (2010).
<https://www.vogue.co.kr>



Figure 17.
구찌 2020 FW.
From Fall/Winter 2020. (2020).
<https://www.vogue.co.kr>



Figure 18.
모스키노 2016 FW.
From Fall/Winter 2016. (2016).
<https://www.vogue.co.kr>

대항하기 위해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모순된 현상이기도 하다. 백인의 인종 차별에 대적하기 위해 급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나타난 흑표당은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남성은 총과 검은 베레모, 가죽 재킷을 입고 다녔으며, 여성의 경우 흑인 특성의 곱슬머리를 억지로 피는 것은 두피에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흑인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인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가죽 재킷, 미니 스커트, 가죽 부츠, 베레모를 착용하였다(Lee, 2016). 이와 모순되게 구찌는 <Figure 17>과 같이 흑인 모델의 머리카락을 일직선으로 피며 흑인의 신체적 특징인 곱슬머리를 무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흑인 모델의 헤어스타일은 신체적 특성을 존중해주기 위해 흑인의 곱슬머리를 본연 그대로 스타일링하지만, 여전히 컬렉션에서는 흑인의 헤어스타일을 패션을 위해 억지로 변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Figure 18>과 같이 돌체 앤 가바나의 2016 S/S 컬렉션에서 흑표당의 상징적인 유니폼이었던 가죽 베레모, 가죽 재킷, 검정 부츠를 흑인 모델에게 착용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패션이 나타난 배경인 흑인 인권 보호라는 목적성을 상실한 채 단순한 미적 취향으로 변형하여 착용한 것으로 모순적인 특성

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가죽 재킷 안에 착용된 미니 드레스는 밝게 디자인하여 아이템의 재구성을 볼 수 있다.

3) 공존

과거부터 이어진 인종 차별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언어, 행동 등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통해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와 현재에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패션을 통한 인종 차별은 인체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차별부터 특정 문화에 대한 차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 폴 고티에 2013 S/S 컬렉션은 차별 없이 백인과 흑인 모델이 등장한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으나, <Figure 19>와 같이 흑인 모델의 입술에만 블랙 립(black lip)으로 메이크업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든 흑인 모델에게 블랙 립 메이크업을 하여 인종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0>의 경우 앞서 본 구찌의 블랙 페이스 아이템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장 폴 고티에는 흑인 모델에게 블랙 페이스를 연상하게 하는 모자 아이템을 착용하게 하여 과거에 흑인의 발전을 막기 위해 나타난 ‘민스트럴 쇼’의 현대적



Figure 19.
장 폴 고티에 2013 SS.
From Spring/Summer 2013. (2012). From [Spring/Summer 2015. \(2014\).](https://www.vogue.co.kr)
<https://www.vogue.co.kr>



Figure 20.
장 폴 고티에 2015 SS.
From Spring/Summer 2015. (2014).
<https://www.vogue.co.kr>



Figure 21.
돌체 앤 가바나 2016 캠페인.
From DOLCE & GABBANA. (2016).
<https://www.fashiongonerogue.com>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백인이 착용하였을 때는 일탈의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흑인이 착용하였을 때는 공존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인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패션 아이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화이트 백래시 패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1>에서 볼 수 있듯이 돌체 앤 가바나는 2016 S/S 캠페인 화보에서 동양인이 스파게티를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을 연출하며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동양인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인식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 론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성 차별과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별에 기여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백래시 패션을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백래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인권, 유색인종 인권에 나타난 백래시로 구분하여, 남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상대로 공격성

을 보이는 움직임을 ‘페미니즘 백래시’로 명명하였고, 유색인종 차별에서 비롯된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만을 우선시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유색인종에 나타난 백인의 반항적인 모습을 ‘화이트 백래시’로 명명하였다.

헤테로토피아란 반공간으로 사회에 의해 발생한 정상 공간들에 이의 제기하는 공간으로 패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새로운 대안이나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중 백래시 패션과 관계성이 있는 헤테로토피아의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의 네 가지 특성 도출을 통해 백래시 패션을 분석하였다. 백래시 패션은 특정 하위문화 패션이 기득권층에 의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하여 착용한 패션을 의미하며, 패션이 가지고 있던 본래 의미의 상실, 특정 패션의 상황적 반복성,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의 특성을 가진다.

헤테로토피아의 네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 페미니즘 백래시와 화이트 백래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페미니즘 백래시에서 일탈은 과거의 여성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패션이 나타났으며, 재구성은 과거의 코르셋이 현대 패션에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순은 주체적인 여성성과 섹슈얼한 여성성의 공존으로 나타났으며, 공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패션을 볼 수 있었다. 화이트 백래시

에서 일탈은 유색인종의 특징이 가미된 패션을 백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보여진 재구성과 모순은 기존의 의미를 상실한 채 패션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종 차별의 시선을 볼 수 있었다.

두 가지 백래시 패션은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재구성과 모순의 특성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의 경우 여성만 착용하는 여성적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백래시 패션이 나타났으나, 화이트 백래시의 경우 유색인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아이템을 어떠한 인종이 착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줬다. 백래시 특성 중 본래 의미의 상실은 일탈, 재구성, 모순에 공통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방향에 따라 특정 특성이 공존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아이템의 해석이 한정되어 있는 화이트 백래시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패션은 단순히 치장하는 것보다 패션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하며 착용해야 하며 다차원적인 시각을 통해 패션을 경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백래시 패션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패션을 정의하였으며, 패션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서 집단의 의견 표현을 차별이라는 영역과 융합하여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인권과 유색인종 인권에 대해 백래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시하였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패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와 패션에 나타난 백래시 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rdry, A., Best 80's Fashion Look : suit chic. (n.d.).

- FASHIONDIARY. Retrieved August 8, 2021, <https://fashiondiary.com/best-80s-fashion-look-suit-chic/>
- Bae, Y. S. (2003). The origins of white supremacy revisited. *American Studies*, 26, 213-240.
- Jeong, H. S. & Yang, S. H. (1999). British street style as an original text of subculture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2(-), 137-162.
- Chung, S. J., Yim, E. H. & Suh, S. H. (2018). Genderless styles in menswear analyzed through the heterotopia 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4), 626-638. doi:10.5850/JKSC.2018.42.4.626
- Dior Autumn-Winter 2020-2021 Haute Couture. (2020, July 6). *YouTube*. Retrieved August 8, 2021, from <https://youtu.be/lyxBFwqRb18c>
- DOLCE & GABBANA CELEBRATES THE ITALIAN LIFE WITH SPRING 2016 ADS. (2016, January 2). *FASHION GONE ROGUE*. Retrieved August 8, 2021, from <https://www.fashiongonerogue.com/dolce-gabbana-spring-2016-campaign>
- Fall/Winter 2010 Ready To Wear Jean Paul Gaultier. (2010).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0/04/19/ready-to-wear-2010-fw-jean-paul-gaultier/#0:57>
- Fall/Winter 2018 Ready To Wear Gucci. (2018).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8/02/21/ready-to-wear-2018-fw-gucci/#0:40>
-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Gucci. (2020).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2/20/ready-to-wear-2020-fw-gucci-collection/#0:34>
- Fall/Winter 2016 Ready To Wear Moschino. (2016).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6/02/26/ready-to-wear-2016-fall-max-maracollection/#0:34>
- Faludi, S. (2017). *백래시*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Hwang, S. W., Trans.). Seoul: arte.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Foucault, M. (2014).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 (Lee, S. G., Trans.). Seoul: Moonji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House of Dior. (n.d.). "Bar": spring/summer 1947. *THE MET*. Retrieved August 8, 2021,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1460>
- Ha, S. B.(2012). Yellow Skin, White Masks: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Internalized Racism and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Studies in Humanities*, 33(-), 525-556.
- Jeong, N. R & Kan, H. S. (202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romantic fashion of Blitz Kids from the perspective of heterotop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5), 62-79. doi:10.7233/jksc.2020.70.5.062
- Jung, M. K. (2014). The Shipment, A Minstrel Show in the post-racial society.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27(3), 345-370.
- Kim, M. J. (2017).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method by the heterotopia spacial concep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6(1), 33-48. doi:10.5934/kjhe.2017.26.1.33

- Kim, M. J., Choi, H. S., Kim, Y. H., Ha, J. S., Choi, S. H. & Ko, H. Z. (2010). 서양패션멀티콘텐츠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4). Paju: Gyomoon.
- Kim, S. Y. & Yang, S. H. (2002). The fashion communication media and the beauty of ideal body (II): Focusing on the beauty of bo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7), 139-154.
- Kim, W. B. & Choo, H. J. (2019). The effects of SNS fashion influencer authenticity on follower behavior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f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1), 17-32. doi:10.5850/JKSC.2019.43.1.17
- Kim, Y.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prep-hop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o, H. Z. (2020). A historical review of black dandy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2), 98-116. doi:10.7233/jksc.2020.70.2.098
- La, C. S. & Choi, J. M. (2004). The symbolism and the expression of corset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Human Ecology*, 8(2), 253-264.
- Lee, C. I. (2016). Black power movement and the third world: Black panther party and black women. *The Western History Review*, 128(-), 321-350.
- Lee, D. S. (2004). Feminine identity and difference in postmodern feminism. *The Journal of Asian Women*, 43(2), 47-73.
- Lee, Y. J. & Koo, I. S. (1997). Influence of black street style on the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3), 544-558.
- Lieberman, R., Suzanne, M., Thomas B. P., Kenneth M. R. and Richard V. 2017. "Trumpism and American Democracy: History, Comparison, and the Predicament of Liberal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SSRN, <https://ssrn.com/abstract=3028990>
- Mi, H. (2020). 총여학생회 폐지와 디지털 시대의 반격 (backlash)의 역동 [The dynamic of the abolition of girls' associations and the digital age backlash].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42), 79-92.
- Minstrel show. (n.d.). *Wikipedia*. Retrieved August 8, 2021, https://en.wikipedia.org/wiki/Minstrel_show
- Miss America protest. (n.d.). *Wikipedia*. Retrieved August 8, 2021, https://en.wikipedia.org/wiki/Miss_America_protest
- Park, E. H. & Ku, Y. S.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s on fashion behaviors: Focused on college student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4(5), 811-820. doi:10.5805/KSCI.2012.14.5.811
- Park, J. W. (2020). The globalization of right-wing populism and "tropical trump": Jairo Bolsonaro's performance politics and backlash. *Citizen & the World*, (37), 1-30. doi:10.35548/cw.20.12.37.1
- Park, W. R. (2010). British black film renaissance in 1980s. *Chonnam Historical Review*, 40(-), 263-299.
- Photos: From the Archives: Corsets in Vogue. (2013, April 29). *VOGUE*. Retrieved August 8, 2021, from <https://www.vogue.com/slideshow/from-the-archives-corsets-in-vogue-photos>
- Rutherford, B. (2009). *Understanding feminist backlash through a fashionable framework: A content analysis of "Vogue" Magazin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ttawa, Canada.
- Saint Laurent. (2020, December 30). SAINT LAURENT - SUMMER OF '21. *YouTube*. Retrieved August 8, 2021, from <https://youtu.be/Dd5vHr-RJPg>
- Seok, H. (2019). A study of discourse of "gender backlash" along with Japanese rightward shift in politics-with special attentions to classroom: Based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65(-), 171-194.
- Seo, S. M.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luid Form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4), 805-819.
- Spring/Summer 2016 Ready To Wear Dolce & Gabbana. (2015).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5/09/27/ready-to-wear-2016-ss-dolce-gabbana-collection/#0:10>
- Spring/Summer 2018 Haute Couture Maison Margiela. (2017).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7/09/28/spring-2018-maison-margiela/#0:7>
- Spring/Summer 2021 Ready To Wear Mugler. (2021).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1/02/26/ready-to-wear-2021-ss-mugler/#0:14>
-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Versace. (2019).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22/spring-2020-ready-to-wear-versace-2/#0:55>
- Spring/Summer 2010 Haute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09).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0/02/25/haute-couture-2010-ss-jean-paul-gaultier/#0:19>
- Spring/Summer 2013 Haute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12).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3/02/26/haute-couture-2013-ss-jean-paul-gaultier/#0:26>
- Spring/Summer 2015 Ready To Wear Jean Paul Gaultier. (2014). *VOGUE*. Retrieved July 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jean-paul-gaultier/#0:76>
- Stubbs, T. (2017, August). CUT LOOSE: PLEATED, WIDE-LEGGED TROUSERS. *THE RAKE*. Retrieved August 8, 2021, from <https://therake.com/stories/style/cut-loose-pleated-wide-legged-trousers/>
- Tyler, D. C. (2020). Culture in communication: Dolce & Gabbana's chopsticks backlash. Available at SSRN 3568980. doi:10.2139/ssrn.3568980
- Yim, E. H. & Kim, M. J. (2003). A study on the subcultural style in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3), 13-31.
- Yim, E. H. (2014). Externalization of corset 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1), 1-15. doi:10.29049/rjcc.2014.22.1.1

Characteristics of Backlash Fashion through the Heterotopia Concept

Seo, Ji Ye · Kim, Yoon⁺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 Textile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backlash is men's adverse reaction and strong resentment against the feminist movement, with the intention to maintain their own power as the Establishment. Such a tendency is also manifested in white supremacy against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for people of color. Michel Foucault defines an anti-spatial space where utopia, which does not exist in reality, exists in reality as "heterotopia", and puts it in the same context as the backlash emerging through the spirit of resistanc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backlash fashion in feminism and white supremacy based on the concept of spatial reconstruction from the anti-spatial perspective of heterotopi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acklash in terms of fashion. Backlash fashion was analyzed to be characterized by loss of meaning, repeatability, and situational flexibility,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some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deviance, reconstruction, contradiction, and coexistence. While feminism backlash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deviance, reconstruction, contradiction, and coexistence, the characteristics of white backlash included deviance, contradiction, and coexistence. First, deviance has a tendency to insist on a fashion tha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ubgroup. Second, reconstruction is related to sublimating a fashion tha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ubgroup to another item or meaning. Third, contradiction means a fashion that has been degraded to a medium for displaying one's individuality while losing the original meaning as a symbolic fashion in the subgroup. Fourth, coexistence means a temporal coexistence where the meaning of the past fashion is retained even in the modern fash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defining a new domain of backlash fashion and presenting a new viewpoint towards the issue of human rights by considering human rights discrimination,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problem, with fashion.

Key words : backlash fashion, backlash, heterotopia, feminism, white supremacy